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손정임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약함의 축복 (롬 8:26-27)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감사할 이유” (출애굽기 23:14-17)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회복은 바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51: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16-18에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23:15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 아빕월의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무교절,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해방의 기쁨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또한 사단의 권세아래 종노릇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의 원천은 좋은 상황과 잘됨,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죄가 사함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 추수감사절 예배** - 지난 주 추수 감사절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성찬식** -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부장모임** - 오늘 오후에 부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 문화 봉사** - 사회협력부에서 12 월 7 일 토요일 오전에 문화 봉사와 전도를 위한 김장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 성탄 예배** - 12 월 22 일에 성탄절 예배 2 부 순서를 갖습니다. 개인, 가정, 단체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부장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2/01	12/08	12/15	12/22
대표기도	손정임	김현옥	심영민	유경애
헌화성도	차은희	이진수	한동윤	김현옥
봉사당번	소망구역	소망구역	사랑구역	사랑구역

행사 및 모임

12 월	성탄 주일예배	12 월 22 일 (주일)
11 월	추수감사 예배	11 월 24 일 (주일)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지혜

감사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쉽지만 좋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너무 쉽게 형성됩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 5:20).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 노트에 하루에 세 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감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주 좋은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경험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행복은 직접 추구함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간접 경험입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섬길 때, 또한 감사할 때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한 까닭은 감사가 행복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술 가운데 우리가 터득해야 할 기술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고 큰 것입니다. 조금만 기준을 낮추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다(thank)"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생각하다(think)"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산소 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산소 호흡기 없이 숨을 쉬는 것이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숨을 쉬며 살아 있다는 것은,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뇌졸중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은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작은 것 속에 담긴 놀라운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기술을 익혀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감사 칼럼에서)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